

“최고의 청년농업인을 키워드립니다”

농진청, '청년농업인육성팀' 기술창업·영농정착 지원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기술창업 지원 등을 전담하는 '청년농업인육성팀'을 1일자로 신설하고 5일 현판식을 가졌다.

청년농업인육성팀은 ▲청년농업인 맞춤형 종합 정보제공 서비스(이하 종합 정보제공 서비스) 운영 책임 ▲청년농업인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전문지도) ▲4H(사헤이) 중심의 청년농업인 네트워크(관계망) 활성화 지원 ▲청년농업인 정착과 창업 활성화 사업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올해 11월경 시범운영하는 종합 정보제공 서비스는 농업분야 취업·창업에 희망하는 청년과 영농정착 초기에 있는 청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운영체제)이다. 청년농업인육성팀은 시스템 이용자들이 정보를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수집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 주기적 정보 갱신 등을 담당한다.

또한 농업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농작물 생산 이외에도 농산분야 기술



농촌진흥청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기술창업 지원 등을 전담하는 '청년농업인육성팀'을 1일자로 신설하고 5일 현판식을 가졌다.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시제품 개발 등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청년농업인들의 활발한 소통과 청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 청년농업인 4H 화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관계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및 관계기관의 품목별 전문가와 청년이 멘토-멘티를

이루는 청년농업인 품목별 조직체를 올해까지 전국 110개소에 조직하고, 비대면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현장의 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육성팀 노형일 팀장은 "농업분야 청년인재 육성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청년들이 농업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담 조직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최고 연 6%' JB카드

재테크 적금 신상품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6일부터 JB카드 재테크 적금 신상품을 출시한다.

JB카드 재테크 적금은 만기 1년 정기적립식 상품으로 월 불입액은 5만원부터 50만 원이내에서 가능하며, JB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기본금리 1.5%에 우대금리 4.5%를 더해 최대 연 6.0%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이율은 예금 신규 월부터 만기일 전전월까지 JB카드 사용금액 조건을 충족한 경우 최고 연 4.0%를 제공하며, 추가로 JB카드 신규고객 연 0.3% 마케팅동의를고객 연 0.2%를 더 받을 수 있다. 가입채널은 전북은행 영업점 스마트뱅킹 및 모바일 웹, 토스앱에서 가입 가능하다. 특히 토스앱에서 가입 시 포인트 5,000원을 실시간으로 지급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제로금리 시대 고금리의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함께하는 전북은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청렴·ESG 경영 결의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5일 2층 대회의실에서 범농협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만드는 청렴 농협을 구현하고 사교여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농협이 '함께하는 100년 농협'으로 도약하기 위해 윤리경영과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전북농협은 ▲ESG 경영 실천 ▲기분과 원칙 준수 ▲내부통제 강화 ▲부패방지 선도 등을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잘못된 사건 하나로 인해 그 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농협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면서 "평소 사교여방 활동 강화는 물론 사고발생 시 명확한 책임 소재와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여름 휴가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근무 분위기를 점검하고자 이달 중순경 92개 농·축협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내부통제 교육을 실시해 사전·사과 예방에 만전을 기할한다. /김윤상 기자

소부장 기업 수출활로 개척

경진원, 소재·부품·장비 특화 온라인 상담회 진행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경진원 내 구축된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 특화 해외 온라인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를 발단으로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사태 등 공급망 충격은 오히려 국내 소부장 산업의 잠재력과 자립 의지를 일깨운 계기가 됐다.

'소부장 강국'을 기치로 혁신적 지원과 강화를 통해 의존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K-소부장 산업은 혁신적 변화를 이뤘고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크게 성장하여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토대가 됐다.

국내 소부장 기업의 적극적인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계획된 이번 상담회는 평가를 통해 10개의 소부장 기업을 선정하고, 각 기업이 타깃으로 하는 국가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기업과 품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회 전 피칭데이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바이어 발굴 담당 파트너사가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매칭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피칭을 위해 1:1 스토리텔링·스피치 컨설팅을 통해 발표력을 향상시키고 기존 PT자료를 마케팅 포인트에 맞춰 재구성하여 피칭에 적합한 PT자료 제작도 지원했다.

경진원은 피칭데이 후 소부장 10개 기업 및 9개국(미국, 브라질, 베트남, 영국 등) 바이어와 1:1 화상

수출 상담 및 통역지원으로 33건의 상담을 진행해 48만불(약 8억 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기록하며 참여기업들의 호응을 얻었다. 경진원은 소부장 품목의 특수성으로 일회성 상담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한 네트워크 형상으로 장기적 사후관리를 통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주)유니카 바이오 대표는 "소부장 품목이 온라인으로 짧은 시간 내 상담이 어렵고, 바이어를 만날 기회도 많지 않아 어려웠는데 이번 상담회에서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 회사의 제품을 설명하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며 "상담회를 통해 관심 있는 바이어와 파트너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샘플을 보낼 계획이다"라고 상담 진행 과정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경진원 조지훈 위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꾸준히 개최되어야 하고, 다양한 품목과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10월에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전북도 통합 수출대전'에서 건설, 화학, 탄소, 기계 품목을 대상으로 9월 초 기업모집과 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진원 홈페이지(jtbkr)와 전라북도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jtrade.jonbu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관련 사항은 전화(063-711-2046)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한전 전북본부 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전기사용자 적기 변경 법적 분쟁 줄인다

한전 전북본부, 공인중개사협회와 고객실명화 '맞손'

한전 전북본부는 고객이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할 때 전기실사용자로 명의를 변경하게 함으로 고객 정보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14일 이내 한전에 통지해 적기변경함에 따라 전기요금 법적 분쟁을 감소

시키고 고객실명화를 통한 고객정보 일치도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한전 전북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내 SNS를 활용, 변경채널 및 방법을 홍보하고 매매·임대 계약 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효과적 명의변경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장마철 대비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

피해 발생 예상 딸... 박지현 사장, 남원 현장 방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장마철 풍수에 대비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박지현 사장은 5일 남원시에 있는 남원광순태양광 디앤이 장교리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관계자와 함께 시설현장을 둘러보며 여름철 풍수에 대비 발전설비와 구조물·배수로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사는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정기검사 대상부터 우기(장마철) 전 조기 검사체도를 시행한다. 하반기에 예정된 정기검사 대상 시설들을 장마가 오기 전인 6월까지 앞당겨 실시



하는 제도다.
오늘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태양광발전설비 부지(배수로)·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 신설과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태양광 부지·구조물 가설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